



1대 도갑이 이필선(미교·84)

이필선으로 대학주보 4년 만화인 1도갑이가 100회를 맞는다. 대학신문의 4년 만화가 4년이라는 세월동안 장수를 한 경우는 드물다. 이는 도갑이가 우리의 정서와 부합되었고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이루어낸 산물일 것이다.

1대 이필선, 2대 한승철, 3대 김종범의 3대에 걸쳐 게재되었던 도갑이를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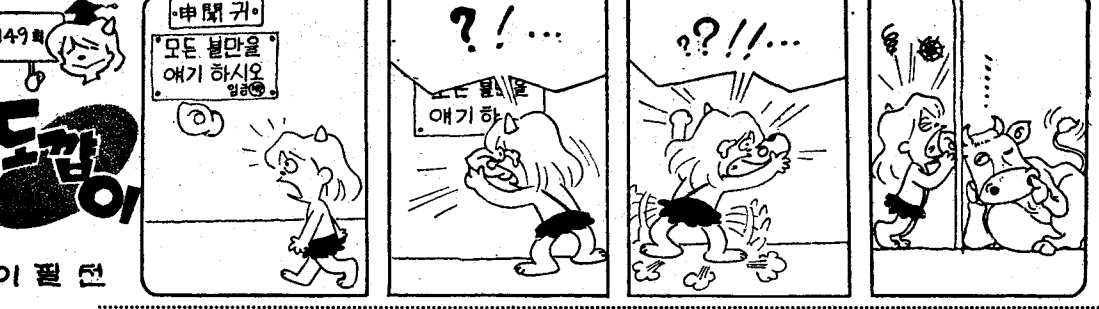
앞으로 독자여러분의 도갑이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과 질책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편집자>

1대 도갑이 이필선(미교·84)



시사만화는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웃음의 그 무엇을 준다

앞으로 만화의 주인공인 도갑이(도갑이의 애칭)는 필자의 손에 놓이는 꼭두각시이기 보다는 스스로의 몸이 피가 흐르는 한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88년 5월 2일
904호에 실린 만화
변형이 안되는 정
부를 풍자한 만화

2대 도갑이 한승철(사화대·경영 86)

오늘날 도갑이가 100회를 맞는다.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도갑이를 아껴주시고 '우리의 도갑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여러분께 2대 도갑이를 집필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88년부터 지금까지 3대에 걸쳐 만화연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별써 그동안 정권이 한번 물갈이를 했으니 말이다. 그 결과만큼은 기간동안 우리의 도갑이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살아 숨쉬는 도갑이로 성장했음을 감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도갑이는 도갑이의 애칭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그 동안 도갑이를 아껴주시고 '우리의 도갑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여러분께 2대 도갑이를 집필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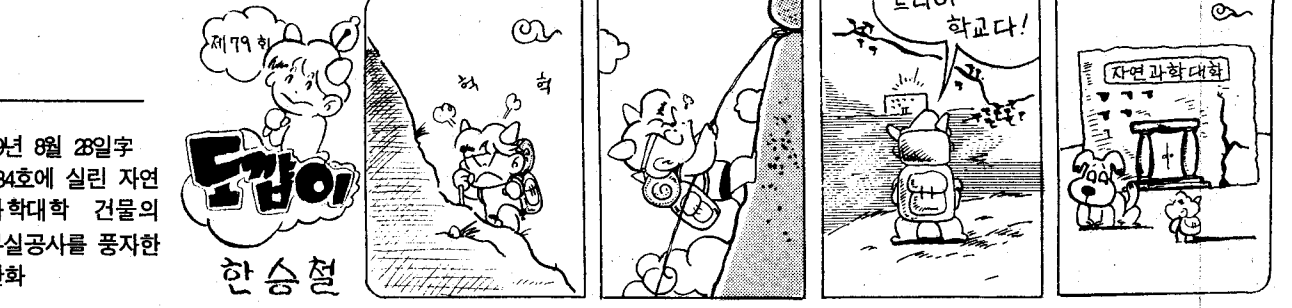
88년부터 지금까지 3대에 걸쳐 만화연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별써 그동안 정권이 한번 물갈이를 했으니 말이다. 그 결과만큼은 기간동안 우리의 도갑이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살아 숨쉬는 도갑이로 성장했음을 감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도갑이는 한국의 토종 도깨비로 재치있고, 친근하고, 순수하다

소재해나를 찾기위해 이리저리 캠퍼스를 쏘다니다보니 보고, 하 루종일 일주일 일간지를 뒤적거리기도하고, 구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밤을 새워도 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대학주보의 시사만화는 단지 4매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지만



88년 8월 28일
904호에 실린 자연
과 학대학 건물의
부실공사를 풍자한
만화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한승철

귀여운 악동이 연출하는 풍자의 미학

특 집 도갑이 100회를 맞아

現 도갑이 김종범(국문·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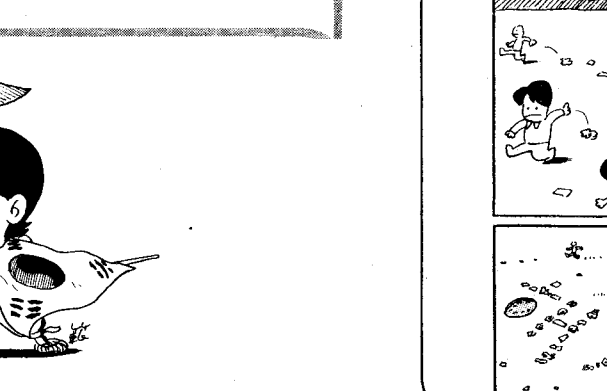
도갑이! 3대에 걸친 탐과 눈물의 결실 도갑이가 벌써 1백회가 되었다. 시립으로 따지면 생후 1백일이 되었다고나 할까? 아기는 백일이 지나면 기어다 니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아닌 도갑이는 지금쯤 팔팔 날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앞선 1·2대 도갑이 필자가 애써 견고히 꾸민 도갑이를 3대인 나 때에 와서 다시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로 퇴보시킨 것같이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88년 5월의 말기적 폭압이 극 을 향하던 시절부터 2년여간 날 카로운 풍자와 해학으로 막혔던 언론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었던 1대 도갑이 필자 이필선 선배, 동글동글 귀여운 선으로 세대와 학내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시원하게 긁어준 2대 도갑이 필자 한승철 선배, 이러한 선배들의 빛나는 족자에 지금 3대 도갑이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꼭꼭 누르려 해도 머리를 치켜드는 부끄러움은 나로 하여금 다시한번 3대 도갑이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한다.

도갑이를 맡아 처음으로 그린 만화의 내용은 백담사 전씨의 근 처가 하나도 없지 않았다. 등-은 나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 했다. 그 도갑이의 행보가 젊음이 아 닌 뒤박질로, 나아가 날개짓하며

려간 도갑이가 동기들에 의해 때로는 선후배의 손에 의해 퇴짜를 맞았을때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삶의 의미를 되짚기도 했었다. '이번주 대학주보 만화·만평 보았어요?' 신문이 배포되는 월요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 그거요? 너무 재미 없는 거 같아 요. 뭐 소리지도 모르겠고...' 이런 류의 답변은 무릎의 관절을 뽐 아 버리는듯 의욕상상의 갈날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따금씩 들려 오는 '이번 만화 편람'에 하는 말들은 결코 긴 가름들의 단비처럼 새해를 복돋아 주기도 한다. 어쨌든 1백회라는 과반한 영광을 온통 차지한 3대 도갑이는 이제 4대·5대 도갑이에게 자리를

도갑이를 날 수 있게 하는것은 독자 여러분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이다



새로이 나간후 뒷발치는 충고의 제책-대사가 너무 길다. 전 근한 벗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할 것이다. 그 도갑이의 행보가 젊음이 아닌 뒤박질로, 나아가 날개짓하며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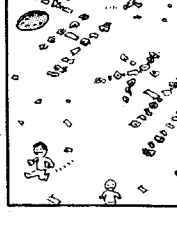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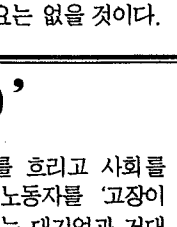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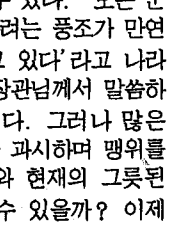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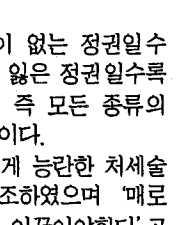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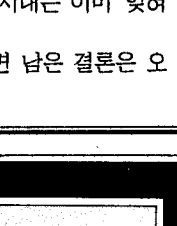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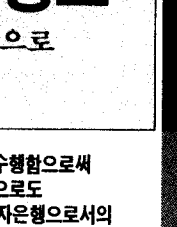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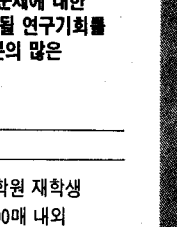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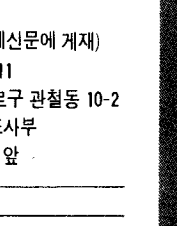
김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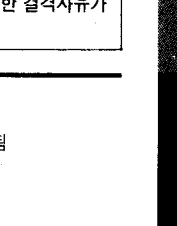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새로운 구사고(旧思考)’

어쩌거나 없다. 하도 기가막혀 싶지는 웃음마저 나온다. 학내와 사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한탄한 주장이 결국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근본원인이 아닐까...

결론으로 '새사고'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지나간 시대의 낡은 사상으로 머릿속을 꼭꼭 채운 사람들이 '한자리 할배' 하며 자기도취에 빠진 채 살고 있다.

지난 10일 각 부 장관들이 가진 합동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책임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만연하고 있는 법질서 문란행위를 비호하기위해 불법노사분규, 학원가 폭력시위, 부동산투기행위는 물론 불법주정차 등 생활 주변의 사소한 법질서위반까지도 엄정하게 제를 집행했다. '고 말이다. 아무리 세태에 둔감한 샌님이라도 이번 에 발표한 내용의 무게중심은 '불법노사분규'와 '학원가 폭력시위'를 강력적으로 단속하자는 데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구나 즉각적인 공권력투입을 통해 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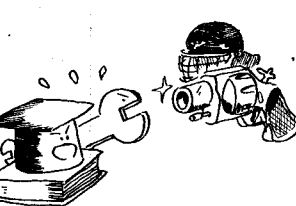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를 호리고 사회를 혼란케 했던 근본원인, 노동자를 '고장'이 찾고 말쑥한 기계로 보는 대기업과 거대 여당의 정치폭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옳은 이치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하여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나라의 안살림을 말아보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 일정부분은 옳은 얘기다. 그러나 많은 의석수로서 다수의 힘을 과시하며 행위를 펼쳤던 거대여당의 과거와 현재의 그릇된 행동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학문의 자유와 진리추구가 보장되어있는 대학에도 서슴없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여로부터 통치에 자신이 없는 정권일수록,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정권일수록 그 통치수단은 물리적, 즉 모든 종류의 폭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옛 성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능란한 처세술 보다는 성실한 품성을 강조하였으며 '매로 북중시지 말고 덕으로써 이끌어야한다'고 했다.

매로 지배가 가능했던 시대는 이미 잊혀진 전설이 되었다.

덕으로써 이끌어 갔다면 남은 결론은 오직 한가지 뿐이다.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유학

가난하지만 학문을 버릴 수 없어서 고학을 결심하고 유학을 떠났던 우리의 선배들. 그분들에 의해 이 나라 유학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분들의 그 진실하고 고충스러웠던 과거가 이제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가 세계로 미래로 향한 그 첫걸음을 호주로 내딛던 지 4년. 이제 아이들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호주로 유학을 떠난 분이 1천2백여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학이 개개 학생을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7개 부문에 걸친 전문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기에 호주 유학 1위라는 명예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은 결코 자만하거나 완만하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열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뉴질랜드에 영어 연수 학교를 세우고 시드니에 아이들 집을 세우고 현지 유학의 고충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드려왔던 저희 아이들의 모든 스승들은 우리의 조국 한국 젊은이들의 대량 유학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학, 학력, 여권, 비자, 현지 적응 등 유학에 관한 모든 것은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방학중 개발, 단기 이수생 접수중

아이들은 아래 학교들의 한국대표사무소입니다.

Bond University
Charles Sturt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Newcastl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Nepean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Intensive English College

※ 정기회비안내: 호주 유정원자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ISEF KOREA 회의실

자세한 문의는

ISEF KOREA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 구세종빌딩 903